

# 코로나19 백신 접종 콜센터 가동

### 전주시, 접종 전 예약 관련·접종센터·접종 후 이상반응 상담 등 관련 문의

전주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콜센터가 생겼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부터 콜센터를 가동했다.

콜센터(063-288-5056 ~ 5065, 5607 ~ 5616)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운영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콜센터에는 ▲접종 전 예약 관련 상담 ▲접종센터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안내 ▲접종 후 이상반응 상담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예방접종 전 주의할 사항으로는 접종 전·후 14일 이내에 다른 접종을 해서는 안 되며, 혈액응고장애나 항응고제 복용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는 예진 의사의 진단 후 접종할 수 있다.

김신선 소장은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접종 과정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면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는 근무자를 2배로 배치하고, 상담원들의 사전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등 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완산공원 꽃동산 전면 출입 통제

### 전주시, 12일~5월 9일까지

전주의 봄꽃 여행지 10선 중 하나인 완산공원 꽃동산이 작년 이어 올해에도 출입이 통제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완산공원 꽃동산을 전면 출입 통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꽃동산 주요 진입로 8개소와 공원에 상시 통제·순찰 인력을 배치해 상춘객의 출입을 통제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출입통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주요 교차로 22

개소와 시 지정 게시대 6개소, 꽃동산 주변 등에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꽃동산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뒤편에 조성된 완산공원 꽃동산은 약 1만 5,000㎡(4,500여평)의 면적에 철쭉과 왕벚나무, 꽃해당화, 배롱나무, 황매화 등 수목 1만 주가 식재돼 있다.

/김윤상기자

# 전북도선관위, 선거 불법 기부행위 혐의자 검찰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제공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00번)를 당부했다."

/유효상기자

#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생 모집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이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생 40명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갖추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6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기술의 이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통계의 이해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 활용 사례 ▲파이썬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필수 라이브러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이해 등의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방학기간(췌한) 캠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전북권 내 대학생 및 취업예정자, 예비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관리시스템(jdu.jc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의 권역평가 우수인센티브를 확보해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로봇공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니스 홍 등이 진행하는 글로벌 AI 특강과 NVIDIA사의 글로벌 자격증 과정, 글로벌 석학 AI 고급과정 등이 마련됐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 필수요소인 AI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해 지역 내 청년들이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미래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AI산업 육성에에도 힘써 인력 순환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운' 노선 일부 조정

### 10일부터 1개 노선 신설·3개 노선 마을 안까지 연장·양현초·중경유 노선 변경

전주시가 오는 10일부터 마을버스 '바로운'의 노선을 일부 조정·운영한다.

노선 조정은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5개월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1개 노선이 신설됐고, 3개 노선을 마을 안까지 연장했으며, 2개 노선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됐다.

먼저 시는 조촌 42-1번(하루 6회) 노선을 신설했다. 조촌동 용덕마을의 경우 당초 720m 가량을 걸어나

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 노선이 신설돼 마을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촌45 ▲조촌48 ▲동서학13번 노선은 조촌동 방면 용강서원, 청북·방죽안, 담마마을과 동서학동 뒷마을 안까지 운행되도록 노선을 연장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혁신46 ▲만성47 노선은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현초·중학교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실제 운행시간에 맞게 시간표를 조정해 각 승강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정시성을 확보키로 했다.

마을버스 '바로운'은 ▲조촌·여의 ▲혁신·만성 ▲금암·인후 ▲평화 ▲동서학 ▲우아 등 6개 방면, 18개 노선에 14대가 운행 중으로,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만2,000여명(평일 1,100명)이 이용했다. '바로운' 이용금액은 연령에 관계없이 500원으로, 최대 2회까지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처음 환승 시는 성인 기준 750원의 차액 요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환승 시에는 무료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와 전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추이엽)는 5일 전주시시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주시-시 기독교연합회, 코로나19 차단 '맞손'

### 교회 방역수칙 철저 준수·방역점검 등에 적극 협력키로

전주시와 지역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전주시와 전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추이엽, 이하 '기독교연합회')는 5일 전주시시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회 스스로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 방역수칙 점검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독교연합회는 책임감을 갖고 자율

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전주시의 방역점검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방역 점검 시 교회와 성도들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이 취약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기독교연합회에 지역 교회 1220여 개소가 속해 있는 만큼 방역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줄이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추이엽 회장은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의 자발적 방역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믿고 전북도와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